

기아, 민·관 협력 구축...“지역사회와 상생”

기아 오토랜드광주 후원 기후위기 대응 교육·체험 지속가능한 광주 만들기 환경문제 해결 적극 동참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해 기아가 지역사회와 함께합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11일 민·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아워드 Next Green City 프로젝트’ 후원에 나섰다.

문재인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은 이날 오전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안효철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게 ‘기아워드 Next Green City 광주 프로젝트’를 위한 후원금 9000만원을 전달했다.

‘기아워드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기아 오토랜드광주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올해는 ‘Next Green City 광주’ 프로젝트를 주제로 설정했다.

기아는 이 프로젝트로 지역 초등학생과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1일 '기아워드 Next Green city 광주' 프로젝트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아 오토랜드광주 문재용 공장장과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안효철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올해 ‘기아워드’에서는 사회복지기관부터 초등학생, 다문화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들이 함께 환경보전의 실천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그린케어’와 ‘그린스쿨’로 운영된다.

기아워드 그린케어는 사회복지기관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일상에 심는 작은 숲’과 ‘투게더 그린, 함께하는 변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일상에 심는 작은 숲’ 프로그램은 광주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총 5

회의 환경교육과 자연체험활동도 진행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깨닫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워드 그린스쿨에서는 지역 내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위한 환경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린다. 동시에 환경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기아워드 Next Green City 광주 프로젝트가 지역민들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실천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워드 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된 광주지역 민·기업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젝트로,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올해까지 총 8억2500만원을 지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AI+ 오픈데이터 챌린지’ 중기부, 내달 5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는 ‘제2회 AI+ 오픈데이터(OpenData) 챌린지’ 참가 창업기업을 오는 6월5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공공기관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를 AI 창업기업에 개방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AI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 창업 기업이다.

올해 챌린지에는 총 6개 과제가 출제됐다. 과제는 공공기관과 후속 계약이 가능한 ‘계약 연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계약 연계형 과제는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자동 생성(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금융지원 의사결정 모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기업 성장 이력 생성 AI 모델(창업진흥원) 등이다.

일반형 과제는 정책 효과 예측 분석(중소벤처기업연구원), 혁신성장산업 영위 기업 자동 판매 서비스(기술보증기금), 시장진출 전략 추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중소벤처기업유망원) 등으로 구성됐다.

챌린지는 서류심사와 본선, 최종평가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과제별 5개사씩 총 30개사를 선발해 본선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평가는 전문가 다면 평가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사용자 체험단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과제별 1개사씩 총 6개 우수기업이 선정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신속 추진해야”

광주상의 성명...도시 경쟁력·지역경제 회복 기대

광주 경제계가 광주신세계의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과 관련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1일 성명을 통해 “광주의 미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관련 행정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은 총사업비 3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광주 최대 민간 투자사업 가운데 하나”라며 “백화점과 터미널 등이 집적된 미래형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광주의 도시 기능 혁신과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주시는 지난 2월 광주신세계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올해 말 착공 목표를 공식화했고, 광주신세계 역시 지

구단위계획 변경 신청과 문화관 철거 완료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광주상의는 “광주시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 경제계는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유사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후속 절차가 진행될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실시한 ‘민선 9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게 바라는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광주상의는 “지역 기업인들은 대기업

및 앵커기업 부재, 청년 인재 유출, 도시 경쟁력 약화 등을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은 지역 경제 회복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점인 만큼 행정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주요 투자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은 투자 결정 이후에도 수많은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와 일관된 정책 추진은 지역 투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광주시가 시민과 지역경제계의 기대를 바탕으로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관련 절차를 보다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특구 육성 512억 투입...딥테크 창업 활성화 속도

오늘 이노비즈센터서 착수회...AI·첨단바이오 사업화 확대

정부가 전국 연구개발특구의 딥테크(심층기술) 기업 육성과 공공기술 사업화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12일 광주 이노비즈센터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착수회가 열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신규 과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를 비롯해 대덕,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광역특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와 평가를 거쳐 선정된 174개 기업 및 기관 등에 총 512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과거정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지역 딥테크 창업 활성화와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AI) 전체의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첨단바이오 16%, 반도체·디스플레이 8%, 첨단로봇 8%, 이차전지 7% 등 국가 전략기술과 딥테크 분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60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들은 국가 전략기술 분야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기술검증(PoC), 시제품 제작, 기능 고도화, 투자전략 수립 등 사업화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사업에는 69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구별 특화산업과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규제샌드박스 연계한 현장 실증과 성능 검증을 수행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화(R

&BD) 자금도 지원받는다.

기술이전과 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전략기술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15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기술을 발굴해 수요기업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에 선정된 19개 수행기관은 특구 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와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올해 신규사업인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도 추진된다. 선정된 11개 연구소 기업은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상용화 연구를 수행하며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입 가속화를 지원받는다.

지역 산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광주의 AI와 미래차, 첨단부품 산업 육성과 연계되면서 지역 혁신기업 성장 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05 vol. 156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인

구독문의: 062)370-7080 광고문의: 062)370-7070

커버스토리
박중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의병정신 원재로 있는 살아있는 역사공간”

진실·교육·체험 이루려는 대표 의병 전문 박물관 개장
시도프로그램 확대-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가짐

전남의 보물섬

와수금도도

황금거북 등에 핀 벼랑길 '봉산'의 신비 벗다

초대석

백혜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이 사법부 신뢰할 때까지 개혁 끈 놓지 않겠다”

화제의 인물

이동원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 회장

지침은 왜 불리했나 전남대 학생의 도전

전남농업이야기

최진실 전남도농업기술원 상황채용연구소 연구사

“두류 신제품 육성으로 국산화 앞당기겠다”

남도 예술인

이관우 기타리스트

“기타 선율로 내 이야기 연주하는 유자선 되고 싶다”

5월 가정의 달

전라도 속 SNS 연수를 자랑하다
구제 치즈샌드 신안 일주도 들쭉날쭉
지천 심신 달래기에 최적

5월 가정의 달

생애 첫 공연 확대 광주에서 영유아 공연은

영민하며 경망으로 우리 아이 성장발육 촉진